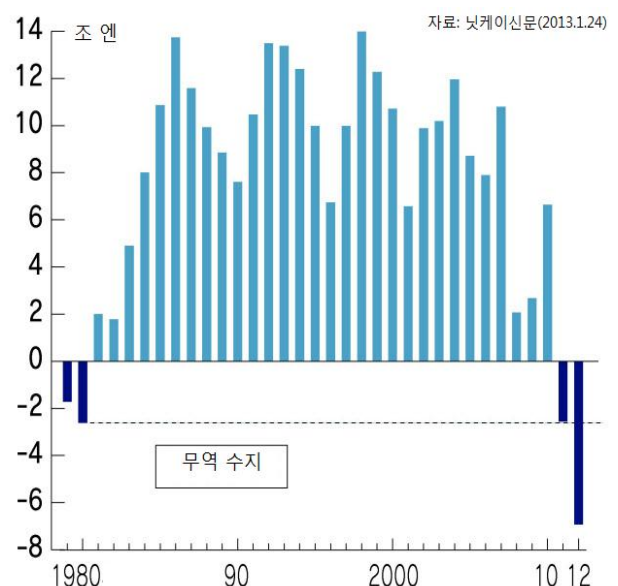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 과거 최대 적자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2년 무역적자(속보치)는 6조 9,273억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
-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 침체와 원전 가동 중지로 화력발전용 LNG의 수입이 늘어난 원인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됨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2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6조 9,273억 엔의 무역적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63조 7,446억 엔, 수입은 3.8% 증가한 70조 6,720억 엔
-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로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80년의 무역적자 2조 6,129억 엔을 상회, '79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
 - '12.12월 무역수지는 6,415억 엔으로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수입은 1.9% 증가
 - 세계경제의 감축과 중일관계의 악화로 수출이 감소, 화력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이 큰 영향을 끼침
- 산업공동화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에너지가격의 변동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 빠지는 것에 대해 우려



<일본의 무역 추이>

(단위: 억 엔, %)

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2000년	516,541	8.6	409,384	16.1	107,158
2001	489,792	-5.2	424,155	3.6	65,637
2002	521,090	6.4	422,275	-0.4	98,815
2003	545,483	4.7	443,620	5.1	101,863
2004	611,700	12.1	492,166	10.9	119,533
2005	656,565	7.3	569,494	15.7	87,072
2006	752,462	14.6	673,442	18.3	79,019
2007	839,314	11.5	731,360	8.6	107,955
2008	810,181	-3.5	789,548	8.0	20,633
2009	541,716	-33.1	514,994	-34.8	26,712
2010	674,000	24.4	607,650	18.0	66,346
2011	655,464	-2.7	681,112	12.1	-25,647
2012(P)	637,446	-2.7	706,720	3.8	-69,273

주: (P)는 속보치 자료: 재무성

□ 지역별 수출입을 보면 對美 수출이 증가하여 2년 만에 흑자규모가 증가한 반면, 對EU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

- 對美 수출은 자동차가 23.8%, 자동차 관련 부품이 18.8%씩 증가, 수입이 3년 연속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유지
 - 일본의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7.5%로 중국의 18.1%에 육박

* '12년 수출 11조 1,848억 엔, 수입 6조 819억 엔, 수지 5조 1,029억 엔

- EU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감소, 수입은 3년 연속 증가

* '12년 수출 6조 5,002억 엔, 수입 6조 6,399억 엔, 수지 △1,397억 엔

-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통신기 38.8%, 석유제품 23.3%, 원유 40.0%씩 증가, 음향영상기기는 25.4% 감소
 - 아세안으로의 수출 호조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 증가한 16.2%를 차지

* '12년 수출 34조 8,629억 엔, 수입 31조 2,915억 엔, 수지 3조 5,714억 엔

- 對中 수출은 원동기 34.3%, 철강 19.0%, 자동차 14.0% 감소, 수입액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하여 과거 제2위를 기록

* '12년 수출 11조 5,114억 엔, 수입 15조 327억 엔, 수지 △3조 5,213억 엔

<각국·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

(단위: %)

	미국	EU	아시아	중국
2008년	-15.9	-7.8	-1.1	0.9
2009	-38.6	-41.0	-26.6	-21.0
2010	18.8	12.8	28.9	27.8
2011	-3.4	0.0	-3.0	-1.4
2012 (P)	11.7	-14.7	-5.0	-10.8

주: (P)는 속보치, 자료: 재무성

- 일본의 '12년 對韓 수출은 6,435만 달러, 수입은 3,885만 달러, 무역수지는 2,5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축소

* 對일무역수지 추이: ('09)2,766만 달러, ('10)3,612만 달러, ('11)2,864만 달러, ('12)2,550만 달러

<일본의 '12년 월별 對韓 무역수지>

[단위: 백만 불]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2년 1월	5,242	3,278	1,964
2012년 2월	5,698	3,503	2,195
2012년 3월	5,882	3,329	2,553
2012년 4월	5,496	2,751	2,745
2012년 5월	5,291	3,098	2,193
2012년 6월	5,094	3,403	1,691
2012년 7월	5,267	3,338	1,929
2012년 8월	5,100	3,108	1,992
2012년 9월	5,328	2,968	2,360
2012년 10월	5,369	3,292	2,077
2012년 11월	5,341	3,621	1,720
2012년 12월	5,241	3,090	2,151
누계	64,351	38,850	25,50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엔저의 진행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 거점이 상당부분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엔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일본의 무역적자 원인은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12.11.8 재무성이 발표한 ’12상반기(4~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한 2조 7,214억 엔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될 가능성은 적음
 - 일본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TPP 등 무역경쟁 환경 정비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고비용 구조의 일본 국내 입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對日 무역수지는 ’12.9월부터 3개월 연속 축소되어 한미 FTA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對中 수출이 감소되었으나, 한국의 對中 수출이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에너지·자원 문제, 산업공동화 등은 한국 또한 일본과 공통적인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추진하는 무역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재무성, “2012년 무역통계(속보)의 개요” (2013.1.24)

닛케이신문(2013.1.24)